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분석

이미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Analysis of Attitudes and Influencing Factors on Foreign Workers

Misook Lee

Department of Saemau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SPS,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영향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SPSS의 χ^2 검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을 통하여 태도의 차이 검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국민정체성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응답자의 태도유형(우호적, 부정적, 이중적)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경제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정적 태도 유형과 법적 권리에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는 공통적으로 국민정체성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적·사회적 위협이 큰 이중적 태도에는 남성, 외국인 노동자 거주비율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갈등이론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사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현실적 경험이나 갈등보다는 인지적 위협으로 향후 원주민에 대한 외국인 이해교육이나 교류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attitudes of Korean people regarding foreign workers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Analysis of the attitude difference and the influential factors utilized the SPSS χ^2 test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2016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s' Consciousness and Valu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national identity,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attitude types (friendly, negative, and dual) of respondents were identified, and the influence of explanatory variables influencing these attitudes was identified. Analysis found they have a relatively generous stance on granting legal rights, while they are negative regarding the economic and social threats from foreign work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influence. However, negative attitudes and dual attitude concerning with negative legal rights found common to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of national identity. Gender and ratio of foreign workers were influential factors for dual attitudes with a high economic threat. On the other hand, socioeconomic factors reflecting the realistic conflict theory were not found to have any effect. The negative attitude of foreign workers in our society can be regarded as cognitive threats rather than realistic experiences or conflicts.

Keywords : Foreign Worke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ttitude, Economic threat, Social threat, National Identity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Lee(Yeungnam Univ.)

Tel: +82-53-810-2162 email: misook@yu.ac.kr

Received August 31, 2018

Revised (1st September 27, 2018, 2nd October 2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이주민 176만 4천명 시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16년 11월 기준 1,764,64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1].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에 해당한다. 그 중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정주형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 이민자 유입, 유학생증가 등 우리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이민 후발국가로 빠른 산업사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로 보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에 이르기까지 체류형유형 또한 다양해졌다. 최근의 제주도 난민 문제 또한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공생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이후 한국의 이민정책은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인은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 와 ‘외국인 이민자와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대상 17개국 가운데 2번째와 4번째로 높았다[2].

현실적인 이주민 수용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거부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살펴보고,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차이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조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분석을 위해 개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우호적, 부정적, 이중적 태도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찾아봄으로써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논의

2.1 사회정체성이론과 현실갈등이론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정체성이론과 현실갈등이론을 통해 주로 설명한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인 이주민으로 인식하기 까지 오랜 시간 우리 삶에 체득된 암묵적 가치가 있다. Erikson(1956)은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과 사회적 조화를 통해 구성되며 정체성 구성의 주요 기제인 동일시를 통해 자기와 타인, 사회와의 간격을 연결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Hogg & Abrams(1988)는 개인이 어떤 사회범주 또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여의식을 국가와 개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느끼는 집단의식의 양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3].

인간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나 개인은 구별하여 배타적인 감정을 갖는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나 ‘종족’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정체성은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어떠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4]. 한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5].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는 ‘부정’과 ‘긍정’으로 양분되며 타인에게 발견된 ‘차이’는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에게 발견된 ‘차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가 개별성으로 분리되어 전체화되고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됨으로 인해 현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부정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한다[6].

또한 부정과 긍정으로 양분된 집단간 차이는 주류사회가 외집단인 이주자에게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즉 주류사회가 이주자에게 느끼는 위협의식은 권력과 자원, 이익과 보상을 위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위협의식은 이주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불관용적인 태도, 차별과 편견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 결과 주류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된 인식 차이를 벽으

로 생성하게 되고 이 차이는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위협의 요소로 현실적, 인지적 거리를 가지게 된다. 한 사회의 다수자 집단은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집단 위협, 혹은 집단 간 관계에서 느끼는 위협은 그 내용에 따라 경제적 위협과 문화적·사회적 위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7]. 경제적 위협은 양질의 일자리, 복지국가의 정책 지원 등 가치 있는 재화들을 놓고 벌어지는 집단 간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적·사회적 위협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과는 사뭇 다른 도덕, 규범, 가치를 신봉하는 이민자집단이 기존의 문화적·사회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다[8].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위협의식을 경쟁의 원천에 따라 외부위협(external threat)과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부위협은 실제로 외국인 이주자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자리나 생업을 놓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의미하며, 인지된 위협은 직접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상황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9].

현실갈등이론은 특히 경제적 위협을 강조한다. 이민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객관적인 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다. 즉, 다수자와 소수자 집단 간의 경제적 경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0]. 현실적 경쟁에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 정책에 대한 접근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경쟁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 RCT)과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구분하는 논리와 동일하다[11][12]. 현실갈등이론은 편견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경제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정체성이론은 외집단을 경원시하는 문화적 규범이나 정체성 요인 때문에 이민자를 배제하는 태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2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들은 현실갈등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의한 다문화의 수용 정도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 및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농촌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나[13][14], 장임숙(2010), 박윤경 외(2008)는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15][16]. 또한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에 따라서도 다문화 수용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17][18][19][20].

그 외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21]와 외국인 증가로 인해 집단경쟁을 인지하는가에 대한 논의[22][23][24]. 다문화 수용을 수동과 피동으로 분류하여 교육의 조절효과 검증[25], 한국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의 관계[26] 등 원주민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영미·이나련(2016)의 연구에서도 위협인식을 덜 느낄수록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6]. 위협인식은 개인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해외경험, 다문화 교육경험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경쟁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고 화이트칼라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민자와 노동시장에서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일반적으로 민족 또는 국가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민자를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용에 관한 큰 영향을 미치는 위협인식과 법적보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가 분석의 단위라는 점이다. 이는 일방적인 수용의 정도를 확인하기 보다는 더 근본적인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의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를 활용한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는 한국인의 변화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의 변화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

증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27]. 본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만 19세 이상 79세 미만의 성인남녀 5000명을 표본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129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긍정적, 부정적 인식의 유형을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태도변수를 생성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 검증법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PSS 22를 활용하였다.

3.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본 연구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변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요인은 외국인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것이며, 부정적 요인은 경제적 위협인식과 사회적 위협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 종속변수는 긍정적 인식

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일관성을 가진 응답자를 유형별로 추출하여 활용한다.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적 특성변수와 국민정체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와 척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전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거주외국인 1,413,753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541,673명으로 38.3%에 해당한다. 전국평균 38.3%를 기준으로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평균이상의 지역은 경남(54.3%), 전남(47.5%), 경북(46.6%)에 가장 많으며,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충남, 제주도가 포함된다. 평균이하의 지역은 대전이 15.6%로 가장 낮고,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가 포함되며 강원도, 전북이 해당된다.

4. 연구결과

4.1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유형분석

4.1.1 외국인에 대한 인식분석

우리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은 법적보호의 필

Table 1.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Scale
Awareness of foreigners	Legal protection	Foreign workers should be given the same labor rights as their Korean counterparts.	1~5
		If you are born in Korea, you should be able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Economic threats	Foreign workers take away jobs for Koreans.	1~5
		Foreign workers have more to do than contribute to our economy.	
Social threats	If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s, the crime rate increases.		
	Foreigner will decrease the social cohesion of the nation.		
National identity	Pride of Korean	I am Korean and I am proud to live in Korea.	1~4
	Belong to Korean	I want to live as a Korean even if I'm born again.	
	Dedication	I want to contribute something for my country.	
	Sacrifice intent	I can sacrifice myself for the country.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Social trust	The general level of trust in our society.	1~10
	Political orientation	Is your political orientation progressive or conservative?	0~10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What is the economic level of your family that you feel?	1~3
	Household economic outlook after 5 years	Household Economic Outlook for the next 5 years	1~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Education / Age / Household monthly income		
	Size of living area	Eup/Meon, Small-Medium city, Big city	
	Ratio of foreign-workers	Above Average, Below Average	

Table 2. Awareness of Foreigners

Unit: persons (%)

Division	Legal protection		Economic threats		Social threats	
	Labor rights	Intellectualism	Job competition	Local spill	Increase in crime rate	Decrease in social cohesion
Strongly disagree	59(1.2)	102(2.0)	230(4.6)	162(3.2)	102(2.0)	107(2.1)
Disagree	571(11.4)	813(16.3)	1389(27.8)	1155(23.1)	719(14.4)	660(13.2)
Moderate	1626(32.5)	1763(35.3)	1742(34.8)	1918(38.4)	1729(34.6)	2247(44.9)
Agree	2359(47.2)	1876(37.5)	1320(26.4)	1477(29.5)	1972(39.4)	1739(34.8)
Strongly agree	385(7.7)	446(8.9)	319(6.4)	288(5.8)	478(9.6)	247(4.9)
Mean	3.49	3.35	3.02	3.11	3.40	3.27
S.D.	.839	.924	.990	.935	.917	.830
Total	5000(100)					

요성과 경제적, 사회적 위협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평균 3.49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국적은 부여하여야 한다는 숙지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인식도 평균 3.35로 나타나 법적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인식인 위협인식도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경쟁과 국부유출에 대한 경제적 위협인식도 각각 평균 3.02와 3.11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회적 위협인식은 더 높게 나타났다.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위협인식은 평균 3.4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증가하면 결속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평균 3.27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위협인식보다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등 우리사회에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환경을 감안한다면 향후 외국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에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1.2 태도유형 구분

이러한 우리 국민의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공존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 유형을 우호적 태도, 부정적 태도, 그리고 이중적 태도 2가지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우호적 태도(Friendly attitude)는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중 법적보호인식에 대하여 평균이상 응답자와 경제적 사회적 위협에 있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태도의 집단이다.

둘째, 부정적 태도(Negative attitude)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보호에 동의하지 않으며, 외국인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이중적태도(Dual attitude)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중적 태도1은 법적보호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태도이다. 이중적 태도2는 법적보호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적인 위협요소이며, 사회적으로도 범죄나 결속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태도 집단이다.

Table 3. Types of Attitude of Foreigners

Unit: persons (%)

Type of attitude	Economic threats Social threats			Total
	1	Mean	5	
Legal protection	1	Dual attitude 1 418(32.4)	Negative attitude 216(16.4)	1290 (100.0)
	5	Friendly attitude 534(41.1)	Dual attitude 2 126(9.8)	

이러한 4유형을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태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총 5000명의 표본 중 1290명이 이 4가지 유형에 포함되었다.

개별유형에 따라서는 우호적인 태도가 534명(41.4%)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적 태도1이 32.4%, 부정적 태도가 16.4%, 그리고 이중적 태도2가 9.8%로 각각 나타났다. 4가지 유형에서는 우호적 태도가 41.4%로 우리사회가 외국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중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모두 합하면 58.9%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4가지 태도유형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4.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태도 차이분석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외국인에 대한 태도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을 제외한 학력,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호적 태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연령은 40대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의 소득군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중소도시,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평균이하인 지역에서 우호적 태도유형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 태도는 고졸의 학력,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분포는 300~400만원대와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 규모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대도시에 분포하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평균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법적보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중적 태도 1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과 40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은 300만원대에 가장 많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비율이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by Cross-tabulation Test

Division		Types of Attitude				Total (persons)	Chi-Square Tests
		Friendly	Negatively	Dual 1	Dual 2		
Gender	Male	255	113	205	71	644	$\chi^2=4.185$ $df=3$ $p=.242$
	Female	279	99	213	55	646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56	53	53	25	187	$\chi^2=47.753$ $df=12$ $p=.000$
	High School Graduate	201	87	170	60	518	
	University attending	27	4	22	4	57	
	University graduate	238	67	168	36	509	
	Above graduate school	12	1	5	1	19	
Age	20~29	96	34	73	14	217	$\chi^2=53.354$ $df=15$ $p=.000$
	30~39	100	27	81	14	222	
	40~49	146	40	99	25	310	
	50~59	103	41	86	32	262	
	60~69	59	57	60	35	211	
	70~	30	13	19	6	68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0	12	18	4	44	$\chi^2=53.551$ $df=15$ $p=.000$
	200~299	53	32	65	20	170	
	300~399	102	42	113	30	287	
	400~499	91	47	75	24	237	
	500~599	137	33	73	12	255	
Size of living area	600~	141	46	74	36	297	$\chi^2=25.896$ $df=6$ $p=.000$
	Eup/Meon	51	11	73	19	154	
	Small-Medium city	247	101	182	57	587	
	Big city	236	100	163	50	549	
ratio of foreign workers	Above Average	221	110	191	68	590	$\chi^2=10.744$ $df=3$ $p=.013$
	Below Average	313	102	227	58	700	
Total		534	212	418	126	1290	

평균이하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다.

법적보호에는 우호적이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높은 위협을 느끼는 이중적 태도2는 고졸의 학력, 60대 이상, 300만원대의 가구소득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지역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거주와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평균이상의 지역에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4.3 외국인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분석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기준 범주는 우호적인 태도로 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유의성검증을 위한 우도비 검증통계량

-2LL(0)은 3234.538이고, -2LL(K)는 2992.701로 χ^2 에 의한 *p*값이 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McFadden R²*값은 0.075, *Cox and Snell R²*값은 0.171이며, *Nagelkerke R²*값은 0.186으로 반응변수의 변동중 약 18.6%의 모형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를 90% 신뢰수준에서 살펴보면, 부정적 태도에서는 성별,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 규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1.34배 높으며,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 규모에 있어서도 대도시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of foreigners by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Negative Attitude			Dual Attitude1			Dual Attitude 2			
	<i>B</i>	<i>Wald</i>	<i>Exp (B)</i>	<i>B</i>	<i>Wald</i>	<i>Exp (B)</i>	<i>B</i>	<i>Wald</i>	<i>Exp (B)</i>	
Constant	.327	.137		-1.407	3.720		.498	.214		
Gender (standard: female)	.299	3.037*	1.348	.088	.394	1.092	.362	2.974*	1.436	
Age	.006	.667	1.006	-.001	.019	.999	.015	2.624	1.015	
Education	-.350	12.565***	.705	-.060	.606	.942	-.270	5.196**	.763	
Montly household income	-.136	4.154**	.873	-.280	26.193***	.756	-.006	.005	.994	
Size of living area (standard: big city)	Eup/myeon	-.923	6.315**	.397	.571	6.406**	1.770	.334	1.009	1.396
	small-medium	-.136	.587	.873	.011	.006	1.011	.062	.078	1.064
ratio of foreign workers(standards: average)	.483	8.022***	1.620	.179	1.640	1.195	.496	5.760**	1.642	
Pride of Korean	.598	11.549***	1.818	.352	5.963**	1.421	.172	.663	1.187	
Belong to Korean	-.137	.932	.872	.031	.074	1.031	.066	.144	1.068	
Dedication	.250	3.181*	1.284	.679	33.748***	1.971	-.054	.092	.948	
Sacrifice intent	-.349	6.775***	.706	-.327	9.015***	.721	-.688	18.052***	.503	
Political propensity	-.028	.376	.972	-.023	.387	.977	-.038	.483	.962	
Subjective hierarchical consciousness	-.020	.021	.980	.382	11.826***	1.466	-.173	1.020	.841	
Social trust	.012	.057	1.012	-.001	.000	.999	.026	.176	1.027	
Household economic outlook after 5 years	-.287	4.845**	.751	.080	.576	1.083	-.250	2.463	.779	
Total	1290									
-2LL	-2LL(0)= 3234.538 -2LL(K)=2992.701 $\chi^2= 241.838$ <i>df</i> =45 <i>p</i> = .000									
Pseudo	<i>Cox and Snell</i> =.171 <i>Nagelkerke</i> =.186 <i>McFadden</i> =.075									

p*<0.10, *p*<0.05, ****p*<0.01

※ Dual Attitude 1: Negative attitude toward legal protection & Positive attitude toward economic/social threats
Dual Attitude 2: Positive attitude toward legal protection & Negative attitude toward economic/social threats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 더 부정적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정체성 요인중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국가를 위한 헌신성,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희생의향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긍심이 높고 국가를 위한 헌신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희생의향은 부정적태도에 부(-)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학적 요인중에서는 5년후 자신의 가정경제 전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향후 자신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이중적 태도1, 즉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것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나 경제적 위협이나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이다. 이에 대한 영향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가구소득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이중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정체성 요인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자긍심, 헌신성, 희생의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은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법적 권리부여나 보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으로 국민정체성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으나, 경제적 위협,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회경제적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이중적태도2는 법적권리나 보호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나 일자리 경쟁이나 국부유출과 같은 경제적 위협, 범죄나 결속력 저하를 걱정하는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느끼는 집단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이중적 태도2를 나타낼 확률이 높으며, 학력은 부(-)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위협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가 정체성 변수는 희생의향만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선행연구와 같이 사회경제성이론은 지지하나, 현실갈등이론을 대표하는 사

회경제적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 평균분석에서 사회적 위협,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법적 권리보호에 대한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경제적·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은 집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현실갈등이론을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선행연구와 달리 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한 유형별 영향요인의 확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이 태도의 유형 구분 없이 일반적인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경제적,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아 현실갈등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위협인식은 사회적 위협(범죄발생, 결속력 저하)인식이 더 높으며, 영향요인 또한 성별과 교육, 그리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협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나 서구의 연구가 설명하는 현실갈등이론이 우리사회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노동법을 통한 권리 보호와 숙주주의 원칙에 따른 국적부여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일자리 경쟁이나, 국부유출과 같은 경제적 위협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의 증가 그리고 사회 결속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도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포용적 가치관과 현실적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호적, 부정적 인식에 대한 태도의 유형 구분에서는 우호적인 태도가 41.1%, 부정적인 태도가 16.4%, 이중적 태도가 42.2%로 나타났다. 이중적 태도 중 법적보호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진 집단이 32.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실질적인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 국민으로서 수용할 수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태도유형의 차이검증에 있어서 성별을 제외한 학력,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 규모와 외국인 근로자 비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유의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적 태도에 영향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사회적 변인 및 국민정체성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도유형을 세분화하여 법적보호에 부정적인 이중적태도1과 경제적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은 이중적태도2로 구분하였을 때 국민정체성 변인은 이중적 태도1에 영향을 미치나,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이중적 태도2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치적 보수, 진보성향에 대한논의 [12][28][29]와 신뢰요인[26] 등은 본 연구에서 모든 태도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사회정체성이론은 지지하나 현실갈등이론의 직접적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실갈등이론을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한 현실적 위협보다는 막연한 편견과 사회분위기에 의한 인지적 위협으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외국인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남성이 외국인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 경제적 위협에 대한 태도의 확률이 여성보다 높으며, 학력과 소득 모두 부(-)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수미(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편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30]. 특

히 지역적 특성요인인 읍·면 지역 거주자는 경제적·사회적 위협인식보다는 법적 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경제적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리사회 외국인 인식제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환경적 측면에서 외국인과의 교류 빈도를 높이고, 접근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하나(2016)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접촉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31]. 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외국인을 접하고 인식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고, 현실적 경험적 인식보다는 막연한 위협인 경우가 높다. 이러한 경우 접촉을 늘린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국민정체성 변수 중 자긍심과 헌신성은 부정적 태도와 법적보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희생의향은 모든 태도에 부적의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추상적인 자긍심이나 헌신성은 다분히 우리사회에 단일민족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일 뿐이며, 적극적인 희생의향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협인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인식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원주민은 분리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공존하는 상대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의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우리사회의 현실적 노동력의 문제나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우리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선택임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가 펼친 정책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거나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에만 집중된 것은 아닌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인과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원주민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원주민을 상대로 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 교류 확대,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이민정책에

서 정부가 상황을 인식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국민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성공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6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2017.
- [2] Yunhap News. July 22, 2018. The age of 2 million foreigners, How to overcome Genov Flavi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0/0200000000AKR20180720043600797.HTML>.
- [3] Y. E. Choi, S. M. Nam, A Study on the Impact of Multicultural Socialization Factors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0, no. 4, pp. 241-279, 2014.
- [4] J. S. Phinney, G. Horenczyk, K. Liebkind, P. Vedder,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7 No. 3, PP. 493-510, 2001.
- [5] M. Coenders, M. Lubber, P. Scheepers, Majo,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Ref. No. 2003/04/01, pp.1-46, 2003.
- [6] Y. M. Choi, N. Y. LEE, A Study on Perception towards Foreigners and Immigrants, *Multi culture & Peace*, vol. 10, No. 3. pp. 149-166, 2016.
- [7] E. Schlueter, B. Meuleman, E. Davidov,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perceived Group Threat: A Multilevel Study of 27 Wester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 No. 3, pp.670-682, 2013.
DOI: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2.12.001>
- [8] J. M. Hwang, Perceived Threats and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Vol. 23, No. 2, pp. 311-346, 2016
- [9]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Vol.23, No.1, pp.143-192, 2011.
- [10] J. G. Polavieja, Labour-market competition, recession and anti-immigrant sentiments in Europ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drivers of competitive threat, *Socio-Economic Review*, Vol. 14, No. 3, pp. 395 - 417, DOI: <https://doi.org/10.1093/ser/mww002>
- [11] M. Coenders, M. Lubber, P. Scheepers, Majo,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Ref. No. 2003/04/01, pp.1-46, 2003.
- [12] J. M. Hwang et al. Research on the multicultural orientation of Korean society, Seoul: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07.
- [13] J. S. Min, D. S. kim, Effects of the Residential Ethnic Composition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Foreign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6 No.4, pp. 71-94, 2013.
- [14] J. H. Lee, K. G. Kim,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ety and Education*, Vol.23 No.3, pp. 53-77, 2013.
- [15] I. S. Jang, The Effects Multicultural Awareness on Policy Attitud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xperts group,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2 No.1, pp. 247-271, 2010.
- [16] Y. K. park, K. H. Sung, Y. D. Ch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 towards cultural diversity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40 No.3, pp. 1-28, 2008.
- [17] J. H. LEE, H. J. Park, K. G. Kim,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1 No.3, pp.5-34, 2014.
- [18] H. S. Kim, S. C. Lee, Measuring Multiculture Acceptance by Skewed Interest in Regions: A Case Study of Dalseo-gu, Korea,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28 No.1, pp. 89-114, 2014.
- [19] S. Y. Won, Effect Factors of perceptions of Foreigners Policy,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20 No.4, pp. 561-589, 2011
- [20] D. H. Kim, G. S. Choi, The study on path analysis for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of undergraduate at social work education, *Korea Social welfare Education*, Vol.13 , pp. 217-242, 2010.
- [21] K. S. Jung, Changes in regional emotion and regional conflict perception, *J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p. 67-70, 2004.
- [22]. J. I. Jo, Determinants of Korean Political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Low-skilled Migrant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5 No.2, pp. 281-305, 2011.
- [23] S. Y. Won, New Social Risk?-Perception toward Immigrant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11 No. 10, pp. 41-62, 2015.
- [24] J. K. Kim, De-nationalism, supranationalism, dual citizenship, and the discussion of the possibility of multiple national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0 No.1, pp. 47-75, 2013
- [25] K. M. Lee, K. S. H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in Relation to Multicultural Acceptance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465-2477, 2015.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5.16.4.2465>
- [26] H.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eople's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Vol.19 No.11, pp. 193-202, 2014.
DOI : <https://doi.org/10.9708/jksci.2014.19.11.193>
- [2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urvey of Koreans' consciousness and values in 2016.
- [28] D. K. Kim, M.J. Jung, C. H. Cha, J. H. Ji, Multiculturalism and Korean's National Identity : Focusing on the Survey Outcomes,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Vol.9 No.1, pp. 183-214, 2009.

- [29] M. Martiniello, Migration Between States and Marke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6, No. 2, pp. 593-596, 2002.
- [30] S. M. Park, K. S. Jung, H. S. Kim, K. Park, National consciousness and acceptance of discrimin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270-2, pp. 1-271, 2004.
- [31] H. N. Jeong, Factors Affecting the Threat Awareness of Multiculture Society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Koreans and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3 No.2, pp.83-112, 2016.

이 미 숙(Misook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영남대학교대학원 지역개발학과(행정학석사)
- 2011년 8월 : 영남대학교대학원 지역개발학과(행정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새마을운동, 농촌개발, 사회자본, 지역사회참여